

“멋진 꿈 갖고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길”

영천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 열어 매주 영어로 수업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에 참가한 60여 어린이들이 반아침경을 봉독하고 있다.

영천 은해사주지 법사가 어린이 포교의 가치를 높이 치켜들었다. 은해사는 12월 17일 승가대학원 강당에서 불교어린이회를 창립하고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을 열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영천과 하양, 금호, 신령 지역에서 온 60여명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은해사 경내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풍선장식이 내걸렸다. 또, 지역의 중고등학생 10여명이 보조교사로 나서 후배들의 활동을 도왔다.

개회사, 삼귀의 찬불가 반아침경으로 이어진 법회에서 법사 스님은 “은해사가 개산 1197돌 만에 제일 기쁜 날을 맞았다”며 “어린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스님도 되고, 의사 공부

원 선생님이 되고, 거지나 도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장차 훌륭한 세계의 지도자,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멋진 꿈을 갖고, 어린이법회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공부를 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단주를 끼워주고 키티와 미키마우스 장식의 귀마개를 선물로 전달했다.

은해사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은 영어로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다도반, 한문반, 축구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일장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매주 영어로 가르친 뒤 반별수업을 하게 되는데 다도반은 지역의 전문 다도

사범이, 한문반은 덕림 스님이 이글 예정이며, 축구반은 경인대 축구부가 지도할 예정이다.

하양에서 김경연(9) 김세연(7)과 함께 온 어머니 장은숙씨는 “어린이불교문화교실을 통해 불교를 알고 친구와 함께하며 협동하는 삶을 익힐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은해사가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은해사 어린이회 창립은 은해사주지 법사 스님의 원력과 영천, 하양, 신령포교당을 비롯한 지역 말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3개월 전부터 준비돼 왔다.

특히 은해사 포교국장 명강 스님은 3개월 동안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무작위로 어린이들을 만나 어린이들의 종교와 성향을 파악하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을 이어왔다.

또 영천, 하양 신령 포교당은 매주 일요일 어린이이 수송을 위한 차량지원을 약속했다.

명강 스님은 “법말사가 원력을 갖고 서로 연계해 전라판 잘 수립한다면 어린이포교에 희망이 있다”며, “산중에 있는 은해사의 불교어린이회 창립이 지역 어린이포교의 물꼬를 트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isu@buddhapia.com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입재

불보종찰 통도사주지 산옹은 12월 20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산림법회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입재 법회를 시작으로 매일 두 차례 대덕 스님들을 초청, 화엄경에 대한 법문을 열게 되는 화엄산림법회는 2007년 1월 18일까지 봉행된다. 특히 매주 일요일마다 영가 천도재를 봉행한다.

입재 법문에서 통도사 전제사 해남 스님은 “화엄경은 팔만대장경 중에 가장 넓고 높으며 불가사의 한 법계진성이 드러난 경전”이라며 “화엄산림법회를 통해 연화장 세계의 불보살님들께 귀의하는 선근을 짓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동국대 명예 교수 인환 스님 등 26명의 대덕스님을 초청, 화엄경의 요체에 대한 법문이 진행됐다. **천미희 기자**

옹호복지관 개관 10주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산하 옹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종)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12월 15일 부산 영빈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불국토 상임이사 법산 스님의 연혁보고로 시작된 이날 기념법회는 개회사, 사상 및 성곡 전담식,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옹호복지관 관장 혜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아이들의 아버지, 어르신들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혜종 스님은 시민여객 김복초 사장 외 9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배기숙 씨 등 3명의 장기근속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은아 기자**

50여석이 넘는 행사장은 정오에 문을 열자마자 자비실현행에 동참하려는 지역 불자들의 호응으로 만원사세가 이어졌고, 로비에 즉석으로 마련된 좌석에도 손님들이 들어서 동화사 신도회가 정성껏 준비한 차와 음식을 즐겼다. 또, 커피숍 입구에 마련된 바자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생필품도 마련했고, 커피숍 한 칸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라이프브로서트, 경품 뽑기 등의 이벤트가 벌어졌다.

동화사상임위원회 손정수 위원장은 “사종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출·제가자간의 단결과 화합을 이뤄 동화사와 불교를 알리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이번 바자회를 통해 대구지역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화사 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근수

국군부산병원 모교사 법사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축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야 동그란 원을 그릴 수 있다. 국군부산병원내 모교사에는 컴퍼스의 중심축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 김근수(57·법안 법사).

국군부산병원 포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법사가 있다. 그가 있어 국군부산병원 모교사가 있다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김법사는 모교사 불사를 이룬 장본인이기도 하다. 맘미동에 있던 국군통합병원원이 지금의 해운대 국군부산병원으로 이전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김법사가 없었다면 병원 내 법당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위기였다. 1995년부터 맘미동 국군통합병원내의 좁은 막사에 법당을 만들어 3명의 포교사와 함께 법

습 치면서 눈물을 흘린 날이 얼마였는지 모른다”고 털어냈다.

“교회에는 음식을 차로 한 차 가득 광사에는 컴퍼스의 중심축처럼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다. 김근수(57·법안 법사). 국군부산병원 포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법사가 있다. 그가 있어 국군부산병원 모교사가 있다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김법사는 모교사 불사를 이룬 장본인이기도 하다. 맘미동에 있던 국군통합병원원이 지금의 해운대 국군부산병원으로 이전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김법사가 없었다면 병원 내 법당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위기였다. 1995년부터 맘미동 국군통합병원내의 좁은 막사에 법당을 만들어 3명의 포교사와 함께 법

12년간 군포교 앞장...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원칙

불상모시기·봉사자 위한 공간 마련 원력 세워

회를 열어 왔지만 병원 이전으로 법회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 강당은 기독교에 양보하고 몇 개월을 기다려 겨우 10명이 들어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겨우 배지 받았을 정도였다. 대부분의 군 간부들이 타종교인이라 김법사의 포교와 모교사 불사에 견제도 심했다. 견디다 못해 녀 장의 항의문을 작성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라도 불교적 특성에 맞는 불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담뱃. 병원내의 전 간부가 모여 2시간여 동안의 회의 거쳐 김법사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김법사는 지금도 ‘불사 장교 한사람이 백 사병 부럽지 않다’는 뼈있는 농담을 하곤 한다. 군포교 현장에서 12년을 보낸 김법사의 애환이 묻어나는 말이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길러놓지 못한 현실에 더해 타종교가 선교에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물적 인적 자원에 대응할 아무런 방안이 없다. 김법사는 “가

도 단 한번의 불평도 없이 불사 권선을 도맡아왔고 봉사에도 늘 함께해 왔다.

국군부산병원 법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앞으로 생기게 될 국군광주병원내 법당 불사에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김법사를 중심으로 그려가는 군포교의 원이 점점 더 둥글어지고 커져간다.

김 법사는 모교사의 세 가지 원력을 이루기 위해 100일 기도를 봉행 중이다. 종 불사와 내대지를 산책로로 조성해 연못에 연밭을 꾸미고 해수관음상을 모시는 것. 그리고 하나는 봉사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생을 사는 동안, 내가 이 곳만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한 곳을 지키며 포교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늘지고 힘든 곳에서 썩어 거름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늘 정진할 겁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직지사 4대문 개축불사 회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성웅)가 장애인들이 쉽게 경내에 드나들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충했다.

직지사는 일주문 대양문 금강문 천왕문 등

4대문으로 들어서는 계단식 진입로의 일부를 경사로로 바꾸는 개축불사를 마치고 12월 20일 일주문 앞에서 회향식을 거행했다. 이로써 직지사에는 그동안 사대문으로 출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이 사대문을 통해 직지사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천미희 기자**

“화음 통해 종교간 갈등 허물길”

부산 6대 종교인 손잡고 평화 기원 음악회 열어

공동선실천 부산종교인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정여)는 12월 14일 부산불교회관 7층에서 ‘제6회 생명존중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200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야성당에서 첫 기도회와 음악회를 개최한 이후 6회째를 맞이한 음악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의 종교지도자와 신도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 부산평화방송 사장 김승주 신부, 최승준 부산예총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도회에서 정여 스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서 종교 간의 영적 교감이 하나

로 뭉쳐질 것”이라며 “음악의 화음이 종교간의 갈등과 장벽을 허무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승주 신부는 “몸의 어느 한 곳만 탈이 나도 몸이 아프듯 종교도 서로 화합하지 않으면 평화를 가꾸어갈 수 없다”며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리는 기도회와 음악회로 세계평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음악회는 금정구복지관 어린이집 원생들의 재롱잔치로 막을 올렸다. 이어 우담바라합창단, 부산 예술인총연합회 한남식 회장의 성가와 성곡관 유도회 박영제 선생의 시창이 선보였다. **천미희 기자**

동화사신도회 바자회 개최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에



동화사 신도회(회장 허석규)는 12월 18일 대구 달서구 화진 예식장 커피숍에서 ‘불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만들기’에 나섰다. 동화사 상임위원회(위원장 손정수와 팔공다도회(회장 광명자) 주관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겸한 일일차집을 개최한 것(사진). **배지선 기자**

謹賀新年 佛紀 2551年

2007년 丁亥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 화 사 호 계 불 교 대 학

주 지 덕 룬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 전화 : 052)293-5550
- 팩스 : 052)293-5540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총무원장	혜 각
총무국장	도 광
사무서지	옹
재무국장	지 성
교무국장	일 우
감찰과장	운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 전화 : 053)766-7231
- 팩스 : 053)766-7232

정법 대승불교 조계종

종 정	운 파	석 해	동
총회의장	법 정	석 덕	암
총무원장	동 천	석 고	림
기획실장	동 하	석 해	공

(총회의원 및 총무직 임원일동)

대승불교 전국승가회 회원 일동
대승불교 전 법 사 회 임원 일동
국제(해외) 포교사단 임원 일동

총본산(총무원) 상원사

- 주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 1리 산 112-2
- 전화 : 054)534-3268

※ 본 종단의 입증을 하시고자 하는 사, 암(승려·법사) 연락 바랍니다